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조치 (제 18 차)

+주님의 평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일정한 제동이 걸렸지만 오미크론 균주의 출현에 의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자들 중 일부는 '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대로 종식을 향해 준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현재의 감염자 수에 따르면 종식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느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한 속에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미사성제는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삶의 양식이므로 교구는 1 월 27 일부터 만연장방지 등 중점조치를 예의주시하지만 공개미사를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2021 년 6 월 18 일자로 발신된 제 13 차 조치를 계속해 적용하겠습니다.

추가 사항을 더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1. 소교구 주일미사에 대하여

a) 기본대책(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환기, 연락처 파악, 노래하지 않기,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 가능하면 2 미터 적어도 1 미터 거리로 자리를 잡고 앉는 것 등에 더해 입당시에 체온을 잴다)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추가: 전원이 함께 부르거나 노래하는 것은 금하지만, 넓은 공간이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에는 성가대에 의한 가창이나 독창은 가능합니다

b) 미사 주례자나 봉사자도 미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다만, 청각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하여 설교대가 회중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설교 중에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는 교구 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제합니다. 그러니 미사 참석여부는 각자 알아서 결정해주세요. 또한 자신의 성당에서 공개미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없는 경우(물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경우 등도 포함)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경우 공개미사를 중지해십시오.

이런 경우 사제는 '주일에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 미사 집전의 의무를 갖는다'(교회법 535 조 제 1 항)라는 것이므로 소교구의 신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미사를 집전해주십시오.

또 주일 전체의 혜택이 어떠한 형태(온라인이나 통신문 등)로 신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 소교구 주일 공개미사를 중지할 경우 책임자 사제가 해당 지역의 모데라토르, 지구장, 교구 사무국으로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무국에는, 메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대교구 사목자 정보 로 알려주세요.

2. 소교구 이외의 수도원이나 시설에서의 미사, 또한 소교구에서의 평일 미사는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도 되므로 각각의 책임자가 판단해주시시오.
3. 미사 이외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는 소인원에 한정할 것, 음식을 먹지 말 것 등 감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주십시오.
4.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는 분, 감염의 불안이 있는 분은 가능한 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우려가 표명되었을 때도 자택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구의 이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 대응은 어디까지나 참고이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현장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할 때는 가장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공지하는 감염대책을 고려하여 결정을 부탁드립니다.